

# 안전문제 돌발 쟁점...판교 참사 책임 공방

## 중반전 돌입한 국정감사 여야 치열한 기싸움 예고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여야의 기싸움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감이 끝나면 세월호 참사 관련법의 입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주요 법안과 새해예산안 심의에도 착수하게 돼 국감 막판 어떻게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발생 6개월 만에 판교에서 열린 야외공연 도중 환풍구가 무너져 20여명이 사상하는 사고를 계기로 '안전 문제'가 다시 핵심 이슈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특히 야당이 이번 주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정부·여당을 코너로 몰아넣는다는 전략을 세움에 따라 안전행정부·국도교통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유관 상임위에선 반복되는 후진국형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 '초이노믹스' 논란 인터넷 검열 의혹 누리 예산 떠 넘기기 줄줄이 도마 오를 듯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고를 정부의 실책으로 규정하고 대어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지만,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의 '적폐'를 원인으로 명시하고 정치 공세 대신 여야가 근본적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당내에 '안전사회 추진단'을 구성, 재난·산업·생활 등 3대 분야의 안전 문제를 현장 활동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

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야외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안전 불감증이 만든 참사, 인간 존엄이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박근혜정부의 위법으로부터 국민 삶과 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와 안전행정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환풍구 추락사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등의 종합감사가 예정된 오는 24일은 밤늦게까지 여야 간 공방이 불을 뿜을 '빅 데이'로 꼽힌다.

기재부·한국은행·법무부·대법원·감사원·안전행정부·경찰청·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가 예정된 27일 역시 마찬가지다.

해양수산부, 법무부·대법원·감사원,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 국감은 세월호 사고 구조 실패

의 원인과 후속 대책의 적절성을 놓고 국정조사를 방불케 하는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확장적 경제정책을 일컫는 '초이노믹스'와 증세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인터넷 검열'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연금공단 국감에선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오른다.

통일부 국감에서는 5·24 조치 해제 문제, 국방부 국감에선 부대 내 성추행·폭력·가혹행위 예방 문제와 미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이 쟁점이다.

교육부 국감은 최근 교육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라는 방침을 발표할 점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 "단식 했으면 죽을때까지..." 세월호 유가족에 막말 "김일성이 조종한 국가전복 반란사태" 5·18 왜곡 공공기관 GKL 교육원장 SNS 글 '파문'

### 박해자 의원 해임 촉구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을 담당하는 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교육원장이 지속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하고, 5·18과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SNS상에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해자 의원(사진)은 지난 17일 GKL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조롱하고, 5·18 광주항쟁과 전라도민을 비하하는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SNS에 올린 홍은미 GKL 교육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장이 SNS에 올린 글 중에는 "자식 죽였는데 왜 부모에게 보상을 주느냐? 노후 보장수단으로 자식 낳아 카운터 가냐?", "단식 결심했으면 조용히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을지?", "통진당과 민주당 강경파들이 모두 완전 단식에 동참하여 죽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진전하고 약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는 등의 막말이 있었다.

홍 원장은 또 "5·18은 북괴 김일성이 배후에서 조정(편직)자 주; '조종한' 의 오



기인 듯) 국가전복 반란사태였다", "전라도는 온갖 해괴하고 이상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지방",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완전 장악한 게 전라도다. 어이 상실을 넘어 두려울 정도"라는 등의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는 글도 지속적으로 올렸다.

박 의원은 "GKL은 한국관광공사가 지분의 51%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 직원이 이렇게 대놓고 편향되고 그릇된 사고를 보이느냐"며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장이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하며 해임을 촉구했다.

홍 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라는 요구에 임명수 GKL 사장은 "세세하게 살펴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홍 원장을) 가능한 한 직무 해제를 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직서를 받거나 해임하는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 총리 "수습 만전 기하라" 정홍원 국무총리가 17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발생한 관객 추락사고 현장을 방문, 관계자들에게 사고현장을 잘 보전해서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감 인물

### 새정치 신정훈 의원

## 도열병 피해 보상 촉구·로컬푸드 방향 제시 농업 현장서 쌓은 전문성으로 정책 국감 열정

지난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간간한 문제 의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만만치 않은 내용을 과시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7일 수협중앙회 국감에서 수백억원의 횡령해도 적발하지 못하는 구멍투린 감사 시스템을 지적, 수협 관계자들의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 것은 물론 15일 해수부 국감에서도 세월호 참사의 이면에 얽혀있는 해수부와 지방항만청, 산하 기관, 민간기업 간의 검은 유착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조직법은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가 최대 논란거리다. 유병언법(범죄수익은 니 규제·처벌법 개정안)은 범죄자가 가족이나 측근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몰수·추징한 게 제3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때아닌 복병'을 만난 셈이 됐다.

특히, 신 의원은 국감 중에도 벼 도열병



발생으로 농민 피해가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지역 현장을 방문, 실재 파악에 나서는 등 농민을 동가 출신의 열정을 보였다. 신 의원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도열병이 농업 피해 보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쌓았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국감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지난 7월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과제', '국내 로컬푸드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등 2건의 정책 자료집을 내고 친환경농업과 국내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오는 23일 농협중앙회 국감장에서 '농협의 개혁방안'에 대해 자료집을 발간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는 지난 17일 이달 말까지 동시 처리기로 한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원래대로라면 법제사범위·안전행정부·농림해양수산위 등 여러 상임위에 걸쳐 다뤄야 하지만 각각 TF를 구성해 집중 심의하기로 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 관련법을 지난해 합의한 대로 이달 말 처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세월호법 협상에는 새누리당에서 주호

## '세월호 3법' 이달까지 처리될까

### 여야 TF 본격 가동...특검 추천 유족 참여 쟁점

영 정책위의장과 의사 출신의 경대수 의원, 새정치연합에서 배재원 정책위의장과 안산을 지역구로 둔 전해철 의원이 각각 나섰다.

세월호법은 특검후보군 추천시 유족 참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족

들이 단순히 자문이나 동의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안구백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진영논리를 버리고 역사사지의 심정으로 유족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유족들의 의견을 최

대한 반영하겠지만 직접 참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조사에 참여하는 꼴이어서 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가 최대 논란거리다. 유병언법(범죄수익은 니 규제·처벌법 개정안)은 범죄자가 가족이나 측근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몰수·추징한 게 제3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때아닌 복병'을 만난 셈이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

www.HanaTour.com

문의전화 062)228-1199

주소 : 광주 동구 불로동 96-7번지 근부시간 : 09:00 ~ 20:00(연중무휴)

상당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리치투어 062)431-0102

가림여행사 수원점 062)955-5230

세정투어여행사 062)464-8000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가을데마여행으로 떠나세요!

무안출발 방콕 전세기 취향

방콕 전세기 출발일 표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4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출발일 1/1(목), 1/5(월), 1/9(금), 1/13(화), 1/17(토), 1/21(수), 1/25(일), 1/29(목)

<p>AAPP1-OX1 <b>방콕/파타야 5일</b></p> <p>총 상품가 1,014,800원 ~</p> <p>항저를 &gt; 가이드+기사+비행기 포함</p> <p>선택관광 있음</p> <p>호텔: 초특급 호텔 4박</p> <p>특정: 24시간 24시간 24시간</p> <p>특정: 24시간 24시간 24시간</p>	<p>AAPP1-OX2 <b>방콕/파타야 5일</b></p> <p>총 상품가 1,314,800원 ~</p> <p>항저를 &gt; 가이드+기사+비행기 포함</p> <p>선택관광 있음</p> <p>호텔: 초특급 호텔 4박</p> <p>특정: 24시간 24시간 24시간</p> <p>특정: 24시간 24시간 24시간</p>
<p>AAPP1-OXA <b>방콕/파타야 5일</b></p> <p>총 상품가 1,464,800원 ~</p> <p>항저를 &gt; 가이드+기사+비행기 포함</p> <p>선택관광 있음</p> <p>호텔: 초특급 호텔 4박</p> <p>특정: 24시간 24시간 24시간</p> <p>특정: 24시간 24시간 24시간</p>	<p>AAPP1-OXK <b>방콕/파타야 5일</b></p> <p>총 상품가 1,453,900원 ~</p> <p>항저를 &gt; 가이드+기사+비행기 포함</p> <p>선택관광 있음</p> <p>호텔: 초특급 호텔 4박</p> <p>특정: 24시간 24시간 24시간</p> <p>특정: 24시간 24시간 24시간</p>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관광이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관광 내역 및 금액,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enland Where Australia Shines

## 호주 퀸즈랜드 설명회

2014. 10. 23(목) 18:30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출장점(광주 동구 서석로 13-1)

문의전화 : 062)228-1199

사전 예약 필수

내가 꿈꾸는 바로 그 여행지!

런닝맨 촬영지로 유명해진 호주 퀸즈랜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세요!

설명회 참석자 제공 혜택

투어팁스 시드니 열풍 증정

두르드카네 샌드위치 with 아메리카노 제공

참석자 전원 다채로운 경품 제공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세비, 관광진흥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에게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관광: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관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이 참여하면 인원이 적은 편이므로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숙박: 숙박은 여행상품에 포함된 숙박객의 숙박객을 기준으로 하며, 숙박객이 1인인 경우 1인 기준 객실을 배정합니다. ■ 선택관광: 선택관광에 참여하는 고객은 선택관광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며,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는 고객은 선택관광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 항공권: 항공권은 여행상품에 포함된 항공권이며, 항공권에 대한 선택권은 여행상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항공권: 항공권은 여행상품에 포함된 항공권이며, 항공권에 대한 선택권은 여행상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항공권: 항공권은 여행상품에 포함된 항공권이며, 항공권에 대한 선택권은 여행상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